

近代 韓國史學의 成長

李 根 洙
 教 養 課 程 部

〈要 約〉

近代韓國史學은 19세기말 20세기초의 우리나라가 근대로 移行하는 時期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歷史意識面과 역사서술 方法의 측면에서 종래의 國史 研究보다 크게 진보한 17·8세기 실학자의 국사 연구에서 이미 近代 韓國史學은 胎動하고 있다. 이러한 近代 韓國史學은 1880~1910年代에 애국계몽史觀에 의한 學者에 의하여 애국정신 민족정신을 國史研究에 의해 개발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통치의 合邦적인 근거를 우리나라 歷史에서 찾으려는 이른바 日帝 이용학자의 식민주의적 韓國史觀에 의해 近代韓國史學은 커다란 위기물 맞게된다. 우리나라 歷史의 타율성·정체성을 中心으로 하는 日人學界의 植民史觀을 비판·극복하는 과정에서 近代 韓國史學은 폭넓게 發展하여 1930·40年代에는 세 學派로 多樣하게 성장하게 되니 박은식·신채호를 계승한 民族主義史學과 社會經濟史學 實證主義史學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解放후에는 이들 세 學派가 병진 보완하여 日帝 植民史觀은 완전히 극복되고 近代 韓國史學의 成長은 完結된다.

The Growth of the Studies in Modern Korean History

Keun Soo Lcc
 Dept. of General Education

〈Abstract〉

The modern history of Korea dates from the time when Korea moved on to modernization around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But it already began budding in the studies of history by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scholars of Sil-Hak(practical learning), whose works were far more advanced from the aspects of historical sense and their methods of description than those done by their predecessors. Such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began to develop as a result of endeavoring to cultivate nationalism and patriotic spirit on the part of the scholars who studied history from the viewpoint of patriotic enlightenment in the period between 1880 and 1910. However, it was brought to a crisis by the colonialistic view of history of the Japanese scholars in government pay who sought the rational ground of their colonial rule in the Korean history. In the course of criticizing and trying to overcome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of the Japanese based on the heteronomy and static state of Korean history, our study of modern history marked remarkable advance, resulting in the growth of three different schools: the school of nationalism which inherited the historical sense of Park Eun-Sik and Shin Chae-Ho, the socio-economic school of history, and the school of positivism.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these three schools completed the growth of the study in modern Korean history, advancing side by side and complementing one another.

I. 머릿말

近代韓國史學의 성장과정은 우리나라가 근대사회로 발돋움 하는 19세기말 20세기초의 시기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한국史學의 성장은 民族史의 커다란 전통기인 日帝의 식민통치 시대에 증대된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 이른바 한국역사에 대한 日帝의 植民主義的 史觀이 곧 그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학자의 한국사에 대한 식민주의적 사관은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歪曲시켰으며, 한국 역사학의 성장을 밑받침에서부터 저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긴박한 위비에서의 근대 한국史學은 日帝의 식민사관을 비판 극복 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해방이후 한국인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사 연구는 권복할 만한 심상을 보여왔다. 그것은 격변하는 사회 현상의 혼란 속에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나아가 바르고 타당한 역사적의식의 정립을 위하여 國史學界가 성주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한국사는 근대사학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近年에는 근대 한국사학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 이것은 현실사회의 올바른 역사적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고 동시에 앞으로 국사학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이기도 하다.

결과는 數三年間 사인과학을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양수업을 강요해 오면서 무엇으로도 전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바르고 타당한 역사적의식을 高揚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감하였으며 그것은 근대 한국사학의 성장과정을 이데시키는 것으로 부디 출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위와같은 목적을 넘두에 두고 최근까지 제시된 한국 史學史 관계의 연구업적 가운데 역사의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선택을 제시하기에는 未給한 처지에 있는 필자로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先學의 연구업적을 그대로 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 한국사학은 19세기말 20세기초의 이른바 舊韓末 시기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의 始源의 형태는 이미 조선후기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國史학자들의 연구에서 보여진다. 즉 조선후기 實學者들은 종래 朱子學者들의 中華思想에 입각한 官撰的 한국사 연구물 통렬히 비판하고, 民族史의 正統性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적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史實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라는 진보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近代 한국사학에 가까운 역사적·역사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근대 한국사학의 성장과정을 개관하려 하는 이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實學者들의 국사적의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부디 출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II. 朝鮮後期 實學者의 歷史意識

17·8세기 조선후기 사회는 조선前期에 비하여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다. 즉 移稼法의 보급과 畝種法의 일반화등 水·畝田 농업기술의 변화는 입건왜란 이후 국가의 개간 장려정책에 편승하여 地主 佃戶制를 확대시킴으로써 농민계층을 크게 분열시켰으며, 농지의 廣作경영이나 商品作物의 재배등으로 소수의 농민이 富農이 되고 대부분의 농민은 小作化되어 더욱 零細하시나 토지를 상실하여 賃노동자로 전락하였다. (2) 또한 大同法 실시 이후 貢人의 출현은 상품 화폐경제를 발달시켜 전국적인 市場經濟이 이루어지고 상품업 자본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의한 高利貸 자본이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도시에 서나 富農을 비롯하고 富益富·貧益貧의 현상이 빈번해졌으며 시기내다가 당쟁으로 인한 양반 관료층의 대립분열이 심화되어 조원왕조의 봉건적인 신분체제는 선차 붕괴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詞章 위주이며 思辨의인 조선前期 이래의 性理學은 이렇게 급변하는 양반사회를 재개편하거나 일본군 侵寇 이후의 격박한 사회상태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이 시기의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趙燕使行에 의해 전래된 서양문화에 관심을 갖는 일부 권로나 재야 학자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사회개혁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른바 實

(1) 이 문헌은 이러한 연구업적이 내증적인 교양지간 통해서 간행되고 있다. 「우리歷史는 어떻게 볼 것인가」(二足文化文庫 83, 1970. 12) 「韓國의 歷史意識」(上, 下) (創批新書 15-16, 1976. 11)

(2) 金容燧, 朝鮮後期農業史研究—農業變動—農學思潮論, 1971
宋植植, 朝鮮後期 農業에 있어서의 廣作運動, 李海男華甲記念論叢, 1970

學思想이 곧 그것이다.

이와같이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은 전통적인 양반 사회를 개편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사회개혁 사상이며, (3) 따라서 전통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인 自我反省의 기운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自我意識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실학자들의 강렬한 자아 의식은 조선사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른바 國學의 발달을 가져 오게 했으며, (4) 그 가운데에서도 國史學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연구 및 이해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實學者의 國史연구에서 두드러진 점은 그들의 역사 의식이 종래까지의 國史에 대한 의식보다 크게 진보하고 있는 점이다. 즉 종래에는 中國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華夷思想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같은 측면에서 역사를 서술하였다. (5) 그러나 實學 思想을 배경으로 한 역사학자의 先驅的 위치를 차지하는 李瀾은 「各有皇王君主域內」(어느나라나 자기 황제 또는 왕이 있어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각개 국가의 독립된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東史自始東國之事 則當以本國紀年」(우리나라 역사는 곧 우리나라의 사실이니 마땅히 우리나라의 기년으로 서술하여야 한다.)이라고 역설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사인식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이익은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사의 비교하면서, 檀君이 처음 우리나라를 세웠고 단군의 계승자는 箕子이며 準이 衛滿을 피해서 남쪽으로 옮겨 馬韓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正統이 끊이지 않았다는 三韓正統論(8)을 내세워 우리나라 역사에 독자적인 계통을 세워 체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익의 이러한 國史의식은 安鼎福에게 계승되어 그의 名姓 東史綱目으로 구체화 되

었으니, 안정복은 이익의 三韓正統論을 받아들여서 檀君조선→箕子조선→馬韓→(三國) (9)→통일신라→고려로 正統이 이어진다고 보고 東史綱目에서 그것이 체계화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익·안정복의 중국중심 세계관에서 탈피한 國史의식은 丁若鏞에 와서 더욱 발전되니, 정약용은 華夷의 구분은 文明의 수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우리 民族文明은 우수하다고 강조하였다. (10) 이렇게 이익·안정복·정약용順으로 華夷思想·중국중심 세계관은 완전히 극복되고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적인 체계화를 이루어 종래보다 선진된 歷史의식이 형성 되었다.

實學者의 역사연구에서 또한가지 두드러진 점은 종래 史家의 관념적인 역사 인식대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史實에 입각한 역사 서술을 주장하는 점이다. 이익은 「東史者本不可見 每以中國史爲據 攙錯以亂之 尤不可讀」(11)이라 하여 과거의 우리나라 史書들이 우리나라 기록을 不信하고 중국기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史實을 혼란시켰다고 비판하고, 도처에서 三國史記·東國通鑑·高麗史 등이 史實을 왜곡 하였다고 지적 하였다. 특히 이익은 종래의 史家들이 成敗가 결정된 후에 역사를 쓰면서 勝者인 집권세력의 편에 서서 成敗를 윤색하고 포폄하였기 때문에 史實의 오류를 후대에 남기고 是非를 전도시켰다고 비판하고, 객관적인 時勢에 의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드러난 史實을 토대로 하여 객관적인 時勢를 밝혀주는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익은 개인의 주관에 의하여 역사가 이루어 진다는 종래까지의 편견적인 歷史인식 태도를 비판 극복하고 史實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時勢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 본동을 설명함으로써 (12) 역사 인식 방법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익의 영향을 직접받은 안정복은 東史綱目 序文에서 三國史記는 소략하고 高麗史는 살대없이 번잡하여

(3) 千疏字, 朝鮮後期 實學의 概念 및 朝鮮後期 實學의 概念 再論, (韓國史의 再發見, 所收)에서는 實學의 기본성격으로서 「自由性」, 「現實性」, 「現實性」을 지목하고 그것이 모두 近代志向性과 民族志向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實學사상이 갖는 사회적 의의의 깊이를 개시하였다.

(4) 이서기에 크게 간결한 국학의 내용은 例語學과 地理學 그리고 이제부터 걸노란 國史學등이다. 黃元九, 國學의 發達 (한글서사 14, 近代의 思想의 萌芽, 1975) 참조

(5) 조근조기 역사서술을 대표하는 東國通鑑에서, 중국을 上國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天子가 하는 祭天의 큰 하나 취가가 쓰는 용어를 쓰는 것은 갑란된 일이라고 지적하여 事大의인 심함을 나타내고 있다. 鄭永福, 朝鮮前期의 歷史叙述, (創作과 批評 41호, 1976, 참조)

(6) 居湖編集 권17 跋大崗略

(7) 居湖先生文集 권25 答玄白順問目

(8) 이익의 三韓正統論에 대해서는 李佑成,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 歷史學報 31집, 1966 참조.

(9) 三國史記 이래로 二國가운데 신라를 중심으로 하여 三國시대를 이해 하던는데 안정복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비중을 같이 하여 三國의 併立했나 하고 佩統의 시기라고 하였다.

(10) 李佑成, 앞이 든 - 글 참조.

(11) 趙(7)과 같은.

(12) 宋世植, 居湖의 새로운 史論, 白山學報 84, 1970.

중요한 것을 빠뜨렸으며 東國通鑑은 어그러진 것이 많다고 종래 史書의 결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東史綱目を 찬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燃藜室記述을 편찬한 李肯翹도 종래의 史書들이 散漫無統하고 중첩되며 상세한 부분은 지나치게 자세하나 疎漏한 곳은 너무 소부하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자료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述而不作 한다고 하여 객관적인 역사 서술의 입장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점은 海東釋史를 편찬한 韓致齋도 마찬가지로서, 柳得恭은 海東釋史 서문에서 한치윤이 經流荒誕한 古記나 史實을 脫略한 三國史記 등의 결함을 메꾸기 위하여 釋史를 편찬했다고 하고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實學者들은 종래의 관념적인 역사인식과 결함이 많은 역사서술방식을 비판하고 종래의 史書의 미비한 점을 고충하고 결함을 시정하면서 객관적인 史實에 입각한 실증적인 역사서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예로서 東史綱目的 체계를 보면 序文 다음에 目次가 있고 모두 74조의 명제를 제시하여 편찬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 3권의 도표를 첨부하고 있으니 玉室三系를 나타낸 傳世圖, 官職沿革圖 그리고 各時代의 역사지도 등이 특징적이다. 그다음에야 총 17편의 本論를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같은 안정복의 역사서술 방법이 지민한 고충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와같은 東史綱目的 체계는 現代의 國史개설서 체계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實學의 國史의식과 歷史인식태도는 근대 한국사학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후술 하겠지만 近代韓國史學의 성립을 담당한 學者들은 歷史의식 歷史인식방법을 實學者로부터 이어 받게 된다.

III. 近代韓國史學의 成立

1. 愛國啓蒙期의 國史의식

近代 韓國史學의 成立은 우리나라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19세기 후반기 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한국사학이 성립하는 시대배경인 19세기 후반기의 한국사회는 두 방향의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하나는 이제까지의 봉건적 사회체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사회를 형성하는 일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제국주의 세력에 대응하여 민족의 독립을 견지하고 그들의 식민지로 진다 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즉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는 강렬한 근대화 의식과 함께 민족의식이 요청되고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근대화 의식·민족의식은 이시기의 지식인에게 특히 강렬하게 요청되었으며 歷史學者의 정신 바탕이 되었다. 이시기의 歷史學者들은 이미 近代지향적인 성격과 民族自主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實學思想⁽¹³⁾을 폭넓게 계승하여⁽¹⁴⁾ 近代化의식·민족의식·反帝의식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역사학자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직접 체험 하였고 따라서 外侵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역사를 연구 서술하게 된다. 따라서 당시의 절박한 사회현실이 그들에게 한국사를 학문적 입장에서 신중히 연구할 여유를 주지 못하였으며, 우선 그들이 당면한 과제는 그들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언론기관을 통하여 民族에게 한국사를 인식시키고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한 애국정신·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이었다. 또한 제국주의 세력과 대항하는 힘을 갖기 위하여 富國강병·文明開化를 강조하는 계몽적인 역할이 그들의 주된 관동이었다. 그리하여 이시기의 역사연구는 문명개화의식·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신문논설과 교양서적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애국제몽시기라고 불리우는 이때의 歷史觀을 구체적인 저술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단계로 나누어 진다. 처음 단계는 實學의 사회개혁 사상을 계승하고 開國으로 확대된 세계관속에서 문명개화를 강조하는 문명개화사관의 단계이다. 실학 사상을 개화사상에 까지 연결지워 주는 중심 인물인 崔漢綺는 地球典要를 저술하여 西/洋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면서 문명개화를 강조한다. 俞貞彦은 당시에 유행하는 사회화론을 받아들여 西遊見聞에서 문명개화를 역사발전의 회기적인 추진력으로 강조하고 역사의 발전단계를 未開·半開·開化로 나누어 開化를 「人間的 千事萬物이 至善極美한 지경에 도달」하는 이성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13) 註(1) 千覽부 논본 참조.

(14) 이시기의 개화사상과 실학사상의 연구에 대하여는 金泳鎬, 侵略과 抵抗의 두가지 樣相, 文學과 知性 2, 1970년 1호, 30-40. 이시기의 지식인에 의해 실행지의 연구업적이 다수 거행된다.

를 開化사상가들은 역사의 본질적인 추진력이 인민 대중의 능동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外來의 개화세력이 곧 제국주의 침략세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外勢와 결부되고 民衆과 유리된 內政變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명개화史觀이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라는 현실적 위기에서 한계에 도달하자 이제는 근대화물 위한 문명개화 고대도 국권회복을 위해 反帝民族의 식이 결실하게 요청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 愛國啓蒙思想이요 애국계몽사관이다. 역시 實學者의 역사의식을 강하게 이어받은 이들은⁽¹⁵⁾ 애국경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사에 관계되는 서술관동을 하니 그것은 동시에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였다. 이시기의 대표적 애국계몽 사학자인 玄采는 幼年必讀의 序文에서 「우리 韓人은 舊習에 얽매이고 愛國하는 일에 어두워, 이 책은 오로지 國史思想 喚起를 주코하고 歷史모씨 總括한다」라고 하여 애국경신을 계발하기 위한 역사의 계몽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애국사상의 구현의 실체인 國權回復의 역사적인 환동에서 제시하기 위하여 國權回復의 진기를 서술하기도 하고 민족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國의 弱망에 대한 역사를 번이하여 소개하기도 한다. 申采浩의 乙支文德傳(1908), 聖雄 李舜臣(1908), 東國巨傑嶺都統傳(1909)과 金澤榮의 安重根傳, 朴殷植의 義士車根傳이 前者의 예에 들고 張志淵의 埃及近世史(1905), 申采浩의 伊太利建國三傑傳(1906), 張志淵의 同名譯書, 玄采의 波尙末年戰史(1906), 越南亡國史(1907), 米國獨立史 등은 後者의 예에 드는 저서이다. 이러한 계몽서 관동과 함께 이루어진 이들의 국사연구로서는 玄采의 梅泉野錄, 鄭喬의 大韓季年史와 金澤榮의 歷史輯略이 그 대표작인 것이라 하겠는데 이들 연구는 實學者의 국사연구물 기법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들의 역사의 식은 反帝民族意識으로 표현되듯이 매우 투철하다고 하겠으나 역사연구방법은 실학자의 연구단계인 年表체적 역사서술이 중심이 된다. 물론 당시의 현실적 여건이 치밀한 학문적 연구 작업을 허용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으나, 그들은 전통적인 역사서술방법인 年表체로 역사를 기술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역사의식이 아무리 투철하더라도 사회의 발전 과정이나 제국주의의 침략과정이 인과관계에 의한 과학적인 서술에 의해 구명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역사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玄采는 일본인 林泰輔의 朝鮮史의 형식을 참고하여 東國史略을 저술한다. 동국사략의 형식은 林泰輔의 조선사를 참고했으나 그 내용용 민족사적 측면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林泰輔의 조선사는 樞府說을 구성하고 漢四郡의 반도진출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任那日本府를 대서 특필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壬辰倭亂을 서술한데 대하여, 동국사략의 樞府를 韓國史의 시조로 하고 漢四郡 및 任那日本府를 경시하고 부경 하였으며 임진왜란에서 義兵활동을 상세히 서술한 것등이 드러난다. 현재는 전통적인 역사서술방법을 반성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근대 역사학 방법론을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애국계몽사상가들은 비록 제국주의 침투 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색관적인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하더라도⁽¹⁶⁾ 국권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들의 투철한 역사의식은 민족의식을 크게 자극하여 후의 민족주의 사관으로 승화 발전되고, 근대 역사학 방법론을 정착시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함께 근대 한국사학 성립의 母胎가 되었다.

2. 日帝 官學者들의 殖民地史觀

애국계몽 사상가의 역사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출현한 근대 한국사학은 같은 시기에 나타난 일제 관료사들의 한국사연구에 의하여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周知하다시피 우리나라 역사가 링계사관에 입사한 근대적 역사서술방법으로 연구되고 서술된 것은 19세기말 20세기초의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이다. 이 시기는 日帝가 韓半島 만주 김략을 목적으로 두개의 전쟁을 도발하고 대륙침략에 총력을 경주하던 때이다. 이러한 침략과정에서 그들의 한국사 연구는⁽¹⁷⁾ 대학의 강좌나 연구기원 및 학술잡지를 통하여 폭넓게 진행되니, 일본에서의 한국사 연구는 일제의 대륙침략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東

(15) 이시기 애국계몽사상가들의 실학사상 계승은 김학과의 업적의 간행이나 그것을 도대로 한 저술의 형식으로 나타나니 金澤榮은 燕岩集을 간행하고(1901年), 玄采는 欽欽新書를 간행(1901年), 張志淵은 1903년에 丁若鏞의 我邦疆域考를 중보하여 大韓疆域考를 출판하였다.

(16) 金奉永, 開化思想家 및 愛國啓蒙思想家의 史觀(讀書生活, 1976, 7)

(17) 日帝시대의 日本學者의 韓國史研究에 대하여는,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叙述, 歷史學報 31, 1966, 8월호.

京大學을 졸업한 林泰輔는 앞에서 설명한 朝鮮史 5권을 저술하여(1901) 이시기 일본인에 의한 한국사 연구의 개척자가 되었으며, 역시 동경대학 史學科 출신의 白鳥庫吉은 랑케의 제자 리스(Ludwig Riess)의 영향 아래 역사연구 방법을 전수하여 學習院대학, 東京대학에서 한국사를 강의 하였다. 白鳥庫吉은 동경에 있는 滿鐵支社안에 역사지리조사실을 설치하여(1908) 한국사연구를 본격화 시켰다. 그의 주도 아래 門下에서 津田左右吉·稻葉岩吉등 한국사의 정예들이 성장하여 日人の 한국사연구는 본체도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日本人 학자의 한국사 연구가 그들의 대륙침략·한국에 식민지 지배를 확립·확고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한국사에 대한 연구 방향은 한국민족에 의한 한국사의 경망한 발전과정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운명이 일본에 同化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증거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 하기 위한 학문외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본인 학자의 한국사 연구는 자연적으로 일정한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한국사를 보는 관점을 植民主義的 韓國史觀⁽¹⁸⁾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日人학자의 한국사 연구 내용을 詳考할 여유가 없는 이 논문에서는 日帝시대에 한국사를 연구는 기본적인 관점이 어찌하였나를 설명하고 그것이 근대 한국사학의 성립과정에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가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침략 정책에 상응하여 나타난 일본인들의 한국사 연구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들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사를 연구하는 관점 즉 植民主義觀은 뚜렷한 性向을 지니게 되니, 그들은 한국사의 기본성격을 他律性和 停滯性으로 규정짓고⁽¹⁹⁾ 그러한 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他律性論이란 결론부터 말해보면 한국역사의 전개는 한국민족의 자주적인 능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外勢의 간섭과 압력이 始終一貫하여 한국사를 전개하

는 본질이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역사는 타율성으로 기본 속성으로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한국사에 대한 타율성 이론은 日帝가 1908년 滿鐵 동경지시안에 滿鐵역사지리조사실을 설치하고 만주와 한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에서 구체화 된다. 일본학자가 滿鮮史라는 것은 「日本の 東洋史學者가 日本の 大陸政策—滿鮮經營에 直接的·組織的으로 인격되어 생겨났던 것이다.」⁽²⁰⁾라고 지적한 정도로 일본의 대륙 침략을 목표로한 정책에서 이루어졌다. 滿鮮史의 목적은 중국이 만주에 대하여 영도성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또한 한국역사의 自主的인 발전을 부정하고 한국사를 만주사의 일부분으로 해석 함으로써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 하려는 데 있다. 滿鮮史의 중심이 된 학자는 앞에서 말한 白鳥庫吉의 문하생 稻葉岩吉이었다. 그는 「朝鮮民族史」에서 任那日本府說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滿鮮不可分の 史的考察」이란 논문에서 조선민족의 복간도 이주를 「祖宗의 故地에 還元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만주는 본래 민족·영토·경제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사의 자주적인 발전과 한국의 독자적인 지배영역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아가 일본의 만주 지배의 합리화를 주장했던 것이나, 이리하여 滿鐵역사지리조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滿鮮史觀에서 한국사의 타율성 이론이 구체화 되었고 그것은 한국사에 대한 半島의 성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적인 무장을 갖추게 되었다.⁽²¹⁾ 半島의 性格論을 대표적 주장자는 三品彰英으로서, 그는 1940년에 저술한 「朝鮮史概說」에서 半島라는 지리적 된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사의 기본적 성격을 附隨性·周邊性·多隣性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역사는 他律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自律的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黨閥性·依賴性·雷同性·宿命論으로 표현되는 韓國民族性의 여러 특징도 여기에 근원을 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리하여 滿鮮史觀과 半島의 性格論이 서로 보완하여 이루어진 타율성 이론은 日帝의 식민지 통치기간 전체를 통하여 한국사를 보는 일본 학자들의 기본 시각이 되었고 한국사에 대한 대부분의 저술에 그대로 반영되

(18) 李基白, 植民主義的 韓國史觀批判, 國史新論 續論, 1961.
李萬烈, 日帝官學者들의 植民主義觀, 讀書生活, 1976. 7참조.

(19) 金容燾, 앞에 든 논문 참조.

(20) 旗田巍, 日本人의 朝鮮觀, 1969, 東京, p.188. 원조.

(21) 李基白, 앞에 든 논문 참조.

었다.

위에서 설명한 他律性 이론에서 三品彰英의 說대로 한국민족의 열등성이 과장되고 따라서 열등한 한국민족에 의해서 전개되는 한국사는 그 발전 과정이 매우 停滯되었다는 이론이 停滯性 이론이 導出된다. 일본학자의 한국사에 대한 경제성 이론은 福田德三의 「韓國의 經濟組織과 經濟單位」(1904)에서 立論된다. 福田德三은 이 논문에서 한국 역사에서는 封建制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회발전이 뒤늦어 당시의 한국 경제상태는 日本 封建制 성립 이전의 藤原시대(10세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일본의 그것에 비해 약 천년정도 늦다고 하였으며 이같은 그의 주장은 이후 한국사에 대한 일본사관의 관점에 큰 작용을 하였다. 福田德三의 이론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黒田敏은 「朝鮮經濟組織과 封建制度」(1923)에서 封建制를 경험하지 못한 조선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므로 自力으로는 近代化를 이룰 수 없는 낙오자이며, 따라서 日本에게는 조선을 근대화 시켜 주어야 하는 使命이 있다고 강조하여 日本의 한국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 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한국사에 대한 경계성 이론은 타율성 이론과 함께 植民地史觀의 중심내용을 이루었으며, 일본 학사들의 한국사 지술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인식한 때 거의 대부분 半島의 性格을 내세우고, 구석기 및 청동기 문화를 부정하여 先史문화의 부정적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楡君神話를 後代의 杜撰으로 보면서 古朝鮮을 부정하였으며 漢四郡 任那日本府⁽²²⁾를 강조하고 기정 사실로 하여 한국 역사는 출발부터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의 대외투쟁을 경시하고 조선 건국과정에서의 주도세력의 事大主義와 兩班의 黨派性을 강조하여 韓國民族性이 열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고대 조선사회의에서의 공건제 결여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그들은 文祿慶長이라고 표현한다—을 왜곡서술하고 중국·몽고·민주·일본에 대한 入朝·入貢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한국사의 非自主性을 강조하고, 韓國文化는 自生발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것을 대부분 모방했다는 文化模倣說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제시대에 한국사를 연구한 일본 학자

들에 의해서 韓國史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他律性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事大主義·模倣性·黨派性이 民族性의 특징이 되어 한국민족은 매우 열등하며 그러한 열등한 민족이 전개하는 歷史는 他國史에 비하여 뒤늦는 停滯性을 본질로 하고 있다하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한국사에 대한 관점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 시키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植民地主義의 史觀에 입지한 한국사 연구는 덩달하게 한국사를 크게 歪曲 하였으나, 한편 당시의 한국인의 국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그들의 이론이 실증적 역사연구 방법으로 무장되었고, 또는 역사 자료를 총독부 신하기관이 집결 보관하여 한국인은 접하기가 어려웠으며,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 관한 정책을 조선총독부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 시대라는 비판적인 현실에 대하여 위축되고 예매적인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시대적인 책임을 진통역사에 회피하는 병폐으로 전차 그들의 植民地史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남시에 널리 알려진 지식인인 李光侖은 「民族改造論」에서 전통文化를 不信하고 한국 민족성의 추상으로서 虛爲·非社會的 利己心·懶惰·無信·怯懦·社會性의 缺乏등을 열거하였으니, 植民地史觀의 論理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反歷史的인 이광수의 의식은 끝내 그를 反民族的인 路線에⁽²³⁾까지 이끌어 갔으니, 그가 일제시대 말기에 식민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조한 것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明白히 왜곡된 일본학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그들에게 유리한 여건 아래 한국인의 역사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따라서 근대 한국사학의 성장은 日帝 植民地史觀의 비판·극복을 前提로 하여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3. 近代韓國史學의 成立

日帝시대에 植民地主義 史觀에 입각한 일본학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他律性·停滯性을 한국사의 본질로 과장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歪曲시켰고 근대 한국사학은 성립단계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한국사학의 성립은 역사의식면과 역사인식의 面에서 日帝 帝國學자의 植民地主義史學을 극복함으로써 가능하였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역

(22) 李萬烈, 古代韓日關係史論의 검토, 文學과 知性 16號, 1974년 3호.

(23) 林鍾國, 靑口文學論, 1966, p. 283. 참조.

사학자는 白巖 朴殷植과 丹齋 申采浩였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890·1900年代에는 皇城新聞 大韓每日新報 등 언론기관에 종사하면서 제국주의의 침략아래 식민지적 상태로 전락해 가는 민족의 현실을 타개 하고자 계몽적인 방법으로 國史를 통하여 애국정신·민족정신을 고취시키 애국계몽史家이다. 그러나 1910年 日帝의 식민통치가 기강사실이 되고 여하튼 긴지적 격동이 기라앉자 이들의 국사연구는 오히려 학문적으로 깊어지는데 근대적 역사의식을 지니고 근대적 역사학 방법론을 국사연구에 도입하게 된다.

박은식의 국사연구와 역사서술 양념은 1915년에 간행된 「韓國痛史」와 1920년에 간행된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박은식은 그가 자신이 1911년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실천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사를 연구·저술하였기 때문에 그의 역사적각은 무엇보다도 강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그는 민족정신을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다. 즉 그는 「古人云 國可滅史不可滅 蓋國形也史神也 今韓之形毀矣 而神不可以獨存乎 此痛史之所以作也 神存而不滅 形有時而復活矣」라 하여⁽²⁴⁾ 形體인 국가는 망했으며 (민족)정신은 본질로 다는 역사는 뒤당하지 않았으니 민족정신을 강하게 유지하면 잃어버린 국가를 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韓國痛史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정신적 측면을 國魂이라 하고 물질적 측면을 魄이라 하여 國魂만 잃지 않으면 日帝에게 빼앗긴 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쓰고 있다.⁽²⁵⁾ 따라서 魂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民族魂의 중심인 역사정신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은식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韓國痛史와 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저술하였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韓國痛史의 기술편법은 近世新史의 저술방법을 따리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후술 이루고 서술과 저자의 논평을 함께 기술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按說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서술방법은 곧 역사적 사실의 발달과정을 因果관계의 면에서 분석 비판 종합해가는 近代歷史學의 방법론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韓國痛史에서 민족사의 진동기인 임계의 김약과정을 상세하고, 韓國獨立運動之

血史에서 우리 민족이 日帝의 침략에 대항하고 독립쟁취를 위하여 싸운 피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역사연구는 日帝의 식민지사관을 비판 극복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니, 日帝당국은 韓國痛史 가행에 자극되어 朝鮮史編修會에서 朝鮮史 編纂을 계획하고 그들의 植民地史觀에 더욱 비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民族魂의 육성을 위하여 전통적인 儒敎-陽明學을 國敎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등 관념적인 역사의식을 지니고서, 또다리의 時代的 요강인 역사 추진력의 주체이며 근대사회 건설의 주체인 人民大衆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혁사상을 역사속에 부각시키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²⁶⁾ 近代韓國史學에 바탕한 歷史意識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朴殷植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近代韓國史學의 성립을 완결시킨 학자는 丹齋 申采浩였다.

丹齋申采浩도 朴殷植과 같이 植民地에 대한 獨立운동의 일환으로 해외에 망명하여 國史學을 다룬 식으로 연구하였다. 즉 그의 國史研究는 그자체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따라서 그의 歷史意識도 단인히 民族正義 정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民族主義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의 국사연구는 1920년대에 걸칠을 맺게 되니 1926년에 완성된 朝鮮上古史, 김은배에 간행된 朝鮮史研究草, 그리고 1923년에 발표된 朝鮮革命史 등에서 그것이다. 위의 모든 연구저작에서 그의 歷史의식이 뚜렷이 나타나나 그중에서도 그의 역사외적 역사이론을 선명하게 진해주는 것은 널리 알려진 朝鮮上古史 總論 첫머리 부분이다.

「이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心的 관능의 상대의 기록이며, 世界史리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 온 상대의 기록이며, 朝鮮史라면 朝鮮民族의 그리되어 온 상대의 기록이니라.」

그에게 있어서 歷史연구는 곧 독립운동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수단이다. 독립이린 日帝의 양보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투쟁을 통하여 奪取하여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은 그는 歷史의 本質도 我와 非我的 투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我와 非我的 투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데에서

(24) 朴殷植, 韓國痛史 解言

(25) 朴殷植, 韓國痛史 結論

(26) 金谷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 韓國現代史 6卷, 1970 참조.

민족 비부에 있어서는 民族의 生長發達의 狀態를 제 일요건으로 하고 다음으로 「我와의 상대자인 四隣 各族의 관계」를 서술의 제 2요건으로 하였다.⁽²⁷⁾ 또한 그는 「民族의 盛衰는 내양 그思想의 趨向如何에 달린 것」⁽²⁸⁾이라 하여 歷史서술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民族精神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民族精神을 危殆하는 事大思想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事大主義者들에 의해 古朝鮮·扶餘·渤海관계의 역사가 경시되고 왜곡되었으며, 그들에 의해 民族固有의 전통사상인 鄕家思想이 湮滅되었다고 하고, 事大主義者에 의해 中國文化만 강조 됨으로써 民族의 전통적인 文化가 경시되었다고 하여 事大主義者가 民族史를 왜곡하고 民族정신을 약화시켰다고 도끼에서 지적하였다.⁽²⁹⁾ 이렇게 그는 民族의 生口狀態·民族精神의 盛衰·民族의 대외투쟁능 民族을 중심으로 하여 歷史를 이해하고 서술하였다. 또한 그는 民族의 구성주체를 民衆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역사추진의 본질적인 힘이 民衆에서 나오므로 이해한다. 따라서 당시의 가장 절실한 독립투쟁도 民衆이 직접 참여한 부덕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³⁰⁾ 즉 그의 歷史意識은 民族主義 정신과 民衆意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역사관은 傳統文化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가 東史綱目을 最善의 史書로 보고,⁽³¹⁾ 韓白謙·安鼎福·丁若鏞·李種徵등 實學者의 史學연구에서만 주제성 있는 國史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³²⁾에서 그가 實學者의 歷史意識을 세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大韓의 希望>에서, 「크구나 大韓의 오늘이 希望이다 멀지않아 造物主가 世界 各 國民의 試驗成績을 알고판 것이니 우리 國民이 第一等의 資格을 가진 것이나」라고 하여 民族의 전통文化에 강한 신뢰를 부여하고 나아가 民族的 誇持를 내세운다. 그의 역사관이 민족의 전통文化를 신뢰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것에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진보적인 사회개혁 思想도 또한 하고 있다. 그는 <朝鮮革命論>에서 口誦을 뜯어내고 이땅에 새로이 건설

하러는 사회를, 「다시 말하면 固有의 朝鮮의, 自由의 朝鮮民衆의, 民衆의 經濟的, 民衆의 社會的, 民衆의 文化的 朝鮮을 건설하기 위하여 異族統治의, 掠奪制度的, 社會的 不平均의, 奴隸의 文化思想의 現象을 打破한이니다」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철저한 사회개혁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역사의식이 현실적인 면에서 결실을 맺는 길은 독립을 쟁취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역사 의식은 日帝로부터 독립투쟁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통해서 체험으로써 얻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民族意識·民衆意識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전통문화를 신뢰하고 그것을 계승하여 현실사회를 개혁한다는 의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申采浩는 역사서술 방법론에 있어서도 近代의 歷史學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즉 그는 역사서술에서 客觀性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客觀性을 위하여 史料批判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하고 철저한 史料批判만이 事大主義 史家에 의해 湮滅되고 歪曲된 역사를 是正하고 復元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史學史적인 비판은 준엄한 것으로서 그가 最善의 史書라고 평가한 東史綱目도 큰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東史綱目的 걸함으로서 첫째 史料의 열람이 부족하고, 둘째 孔子의 春秋와 朱子의 綱目 시술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역사사실의 평가를 잘못 하였으며, 셋째 역사의 주체를 皇室 중심으로 함으로써 民族의 움직임은 沒覺하였다는 세 가지 실을 지적하였다.⁽³³⁾ 그의 주장은 史料수집방법, 역사적 사실의 평가와 서술, 그리고 역사의 주제등이 따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史料批判, 고증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연구를 통해서만 객관적인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고 한 그의 史學은 비로 近代의 역사연구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객관적인 역사연구를 통해서 기술되는 역사요목은 「衣食住의 情況과 農工商의 發達과 田土의 分配와 貨幣制度와 其他經濟組織등이 어떠한 것이며 人民의 運動과 또 疆土의 伸縮을 따라 人口의 加減이 어떻게 된 것인가」⁽³⁴⁾를 서술해야

(27) 申采浩, 朝鮮上古史 總論

(28) 申采浩, 朝鮮歷史「一千年來第一大事件」, 朝鮮史研究會 所收집조.

(29) 同, 27, 28집조.

(30) 申采浩, 朝鮮革命論을 참조.

(31) 그가 1910年 亡命한때에도 東史綱目 全권만을 지니고 있었다 한다. (나대사랑 3호, 1973참조)

(32) 同 27참조.

(33) 同, 總論.

(34) 同, 1

된다고 하여 역사전개에 있어서는 사회 생활의 物質的 조건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갖는 一定한 合法則性에 대한 解明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個人으로부터 社會를 만드느냐 社會로부터 個人을 만드느냐? 이는 古代로부터 歷史學者의 論爭하는 問題이다.…… 그러던 世宗의 世宗이 되며, 退溪의 退溪된은 世宗이나 退溪 自身이 아니요 社會가 만듦이라 하는것이 옳지 않음까」⁽³⁵⁾라고 하여, 역사는 걸출한 왕이나 위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인물들은 사회생활의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세약을 받는 사회적 所産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申采浩가 주장하는 역사연구는 개인이나 영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객관적 조건의 성격이나 物質的 조건의 合法則性에 대한 연구이어야 하며 역사 서술 방법은 史料批判등 고증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史實을 토대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近代韓國史學의 成立이 丹齊史學에서 완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역사의식·역사인식·역사연구 방법의 이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신재호의 연구분야는 주로 韓國古代史⁽³⁶⁾ 분야이다. 丹齊史學의 뛰어난 업적의 하나가 日本學者들이 부인하려고 애썼던 古朝鮮의 歷史의 性格에 관한 연구업적이다. 申采浩는 종래의 歷史地理의 인식에서 벗어나 民族移動說이란 새로운 이해방법으로서 古朝鮮 및 三韓의 위치와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 사건인 妙淸의 亂을 思想史的인 면에서 고찰한 <朝鮮歷史上一千年來第一大事件>도 전통사상 전통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부임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申采浩의 연구업적이 最近까지의 韓國古代史 분야의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申采浩 史學의 價値를 드러내 준 것이라 하겠다.

丹齊 申采浩는 日帝의 지배를 헐러와 시키는 이른바 植民地 近代化와 함께하면서 獨立運動을 실천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自主의 近代精神을 도모로 하고 자신의 전통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동시에 전통문화에 대한 준엄한 비판정신을 아우러서 그의 역사의식으로 승화시켰다. 그러한 역사의식을 根底로 하여 진보적인 역사인식

역사연구 방법이 함께하여 近代韓國史學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Ⅶ. 近代韓國史學의 成長

愛國啓蒙史家의 愛國정신·民族의식을 계승하여 우리나라 歷史를 왜곡한 日帝어용학자의 植民主義 韓國史觀과 대립하면서 朴殷植과 申采浩에 의해 1920년대에 성립된 近代韓國史學은 1920년대 후반부터 다양하게 발전해 나간다. 近代韓國史學의 成長發展이 韓國史의 他律性이나 停滯性을 더욱 고지하게 강조하는 이른바 日帝 植民史觀을 비워·극화하면서 이루어진 것임은 님연한 일이나 하겠다. 그러나 國史學이 하나의 獨立된 近代的 學問으로 成立되기 까지는 어느 개인 歷史家에 의하거나 어떤 단일한 學派에 의해서 쉽게 단정될 수는 없었다. 府知되어 있듯이 저어도 民族主義史學·社會經濟史學·實證主義史學이라고 구히 규정하는 세 派의 발전과 상호 인결에 의해 國史學의 近代的 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 學派의 歷史學은 역사의식이나 역사인식 또는 歷史서술 방법론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민족 民族主義史學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³⁷⁾ 朴殷植과 申采浩의 역사의식을 계승한 學者들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간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서술은 民族과 民族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民族史의 선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건술현 바의 같이 朴殷植은 「國魂」을 歷史의 主本이라 하였고 申采浩는 구체적인 「郎家思想」의 민서기 民族史를 좌우 하였다고 하듯이 1930년대에 爲帝 鄭寅普는 「열」을 역사의 脊柱라고 생각한다. 鄭寅普의 주된 국사 연구 업적은 1930년대에 朝鮮日報에 연재한 것을 1946·7년에 간행한 「朝鮮史研究上·下」를 들 수 있는데 동이일보에 연재될 때의 제목이 「五千年 朝鮮의 열」이다. 「열」이란 물론 民族精神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의 朝鮮史研究 序文에서도 「歷史는 百變千幻한다. 그러나 그 髓血을 循摩하여 보면 곧 人心의 蜿蜒屈折함이다. 人心 또한 眞僞·虛實·詐誠·邪正의 遞代함이 巧算으로써 헐 수 없는 것이라 그녀나 그 脊柱는 이른바 「열」이니 이 「열」이 있는지라 變해도 또 幻해도 雲裏의 龍身과 같이 歷久一貫의 大線을

(35) 同上

(36) 申采浩의 韓國古代史 研究에 대하여는 金哲垓, 丹齊史學의 位值, 나라사당 3호, 1970참조.

(37)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設法, 文學과 知性 4호, 1971참조.

尋索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그는 역사의 본질을 「열」에서 찾고 있으며, 「열」의 隱顯은 곧 歷史의 消長盛衰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日帝 官學者들이 강조한 漢四郡 문제를 주로 연구하였는데 그는 漢四郡이 鴨綠이남에 있었던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³⁸⁾

鄭寅普와 同學인 民世 安在鴻 역시 申采浩의 歷史 의식을 계승한⁽³⁹⁾ 民族主義 史學者이다. 安在鴻은 申采浩의 古代史 연구업적을 토대로 하고 당시까지의 다른 학파의 연구업적을 수용하여 民族主義 史學의 목을 넓히는 연구를 행하였는데 이것이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에 걸쳐 집필되고 解放후인 1947·8년에 「朝鮮上古史鑑 上·下」로 정리되었다. 그의 古代史研究 가운데 특히 檀君朝鮮에서 三國時代까지의 역사의 계통을 古朝鮮社會의 발전과정이라는 論理로서 정리한 점과 箕子朝鮮을 중국인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檀君朝鮮을 계승한 우리나라 古朝鮮社會의 발전단계로서 파악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日本에서 大學을 다녔으나 귀국후 民族主義 史學者들과 깊은 交流를 가진 湖岩 文一平도 이 학파에 속한다고 보겠다. 그는 國魂·郎家思想·열을 강조한 朴殷植·申采浩·鄭寅普와 마찬가지로 民族 정신을 歷史의 本質로 파악하고 그것을 「朝鮮心」으로 표현하였다. 이 「朝鮮心」은 歷史的 形成物로서 그것을 지닌 대표적 인물을 卍宗이라고 하였다.⁽⁴⁰⁾ 文一平도 역시 申采浩의 역사의식을 계승하여 申采浩가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기타 民族主義 史學 계열에 들어가는 學者를 더 들 수 있겠지만⁽⁴¹⁾ 1930·40년대 民族主義 史學으로는 위에 든 爲堂·民世·湖岩을 대표로 꼽을 수 있겠다. 이들은 대체로 朴殷植·申采浩 史學을 계승하였으나 日帝 어용 학자에 의해 태극권 古代史 분야에 기중하는데 그들의 공통된 성격은 韓國史의 발전의 근본이 되는 것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였다.⁽⁴²⁾ 이것은 그들이 주로 民族精神이 강조되었던 日帝 植

民統治라는 시대여건 아래에서 民族의 독립을 위한 실천적인 독립투쟁이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와같은 점이 그들의 역사연구를 관념적이다, 또는 더하여 비과학적이다, 편협하다 라고 낮추어 평가될 수는 없겠다. 오히려 이들의 역사서술은 民族과 民族精神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나 역사를 국제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였고 우리의 전통을 경근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도외시 되었던 사회다툼이나 民俗學의 성과까지 흡수하여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태도이고⁽⁴³⁾ 따라서 해방이후의 역사의식·역사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學派라고 할 수 있다.

民族主義 史學과 달리 日帝시대에 제기된 歷史研究의 또한 방향은 社會經濟史學⁽⁴⁴⁾이다. 1930년대에 나타난 社會經濟史學의 主流은 마르크스主義 역사학이라 하겠으며 그 대표적인 연구업거으로는 白南雲의 「朝鮮社會經濟史」(1933)와 「朝鮮社會經濟史 上」(1937)을 들 수 있다. 그는 日帝 官學者들의 韓國史停滯性論을 비판하면서, 또한 歷史的 法則을 경시하였다고 하여 民族主義 史學者를 비판하고 韓國史를 世界史의 발전 단계와 同一한 발전 法則에 의하여 서술하였다. 白南雲이 世界史의 관련속에서 韓國史의 단계적 발전을 체계화라고 떠라시 日帝 官學者들의 韓國史 停滯性論을 극복하였다는 점은 당시에도 높이 평가되어 졌으나 그거 西洋史를 기준으로 한 法則을 그대로 韓國史에 적용하려고 한데서 파생되는 많은 오류가 지시되기도 한다. 白南雲에 의해 개척된 社會經濟史學은 어려학자에게 계승되어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그 主流을 이루는 연구는 韓國史를 계급투쟁의 역사로서만 파악하여 解放이후에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이용되는 상태가 되었다.

民族主義史學·社會經濟史學과 더불어 1930·40년대에 형성되어 近代韓國史學의 成長을 담당한 또한 하나의 學派는 이른바 實證主義 歷史學派⁽⁴⁵⁾이다. 實證主義史學은 日帝시대에 日本의 大學에서 전문적인 역사연구교육을 받은 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

(38) 鄭寅普, 朝鮮史研究上, 漢四郡役 참조.

(39) 安在鴻은 해방후 간행된 申采浩의 朝鮮上古史 序文을 지었다.

(40) 文一平, 史眼으로 본 朝鮮, 8 儒柳學과 朝鮮學, 참조.

(41) 民族主義 史學者로서는 이들 외에 崔南善·孫晉泰·李仁榮·洪以變 등이 거론된다. 李基白, 民族主義史學의 問題, 思想界, 1963. 2월호, 및 註 37의 金容燮 논문 참조.

(42) 李基白, 韓國近代史學의 發展, 三民主義文庫 34, 1973.

(43) 註 37 참조.

(44) 註 17 참조.

(45)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發展 2, 文學과知性 9호, 1972 참조.

루어진다. 이들은 1934년에 震檀學會를 설치하고 출신대학에서 훈련된 실증적·비판적 역사학을 표방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연구경향은 민족정신을 역사의 본질로서 이해하는 民族主義史學이나 世界史의 발전법칙에 따라 韓國史의 발전과정을 체계화 하려는 社會經濟史學과 달리, 歷史에 대하여 어떤 先入見없이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문헌고증의 실증방법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의 진태태명에 역점을 두고 있다. 朴漢 李丙燕은 중심으로 한 實證主義 사학자는 각자의 전공분야와 진흥시대에 관한 연구에서, 즉 李丙燕은 古代歷史地理와 思想史, 金肇基는 對外關係史와 東學史에, 李相植은 朝鮮建國史와 社會制度史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견실한 학풍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이들이 日本에서 大學에 다닐때나 귀국후에도 주장하는 학풍이 「역사적 史實의 구체적 해명」에 있는 것이므로 해서, 이들의 역사연구에서 日帝에의 민족적 저항이나 그를 뒷받침하는 민족정신의 양양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역사 이론적인 면을 경시하게 되고 따라서 日帝어용 학자들이 주고 내세운 우리 역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내세운 비두리안에서 연구한 것이 되고도 남을 간과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업적은 歷史的 事實이 사회의 유기적 발전이나 사회구성체내에서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史實의 인과관계적 해명이 중심이 되는 사전서술적인 역사학이 되었고 近代韓國史學의 기본 방향이 될 日帝植民地史觀을 비판·극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는 民族정신을 본질로 하는 관념적인 면이 짙은 역사해석을 하는 民族主義 史學이나 一元論的인 歷史法則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회경제사학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史實의 實證的 해명을 중시해서 역사연구 수준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實證主義史學에서 이루어 놓은 역사연구의 방법이나 자세는 해빙이후 그대로 계승·발전되어 國史學이 독립된 학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近代韓國史學의 성장과정을 史學史的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近代韓國史學은 19세기말 20세기초 무렵에 비롯되나, 역사의사적인 면과 역사서술방법에 있어서 종래의 그것보다 크게 진보한 17·8세기 實學者의 國史研究에서 이미 近代韓國史學이 胎動하였다고 하겠다. 李澤에 의해 제시되어 安鼎福·丁若鏞에게 연결된 正統性에 의한 국사의 체계화는 중국중심 역사관을 극복하여 民族史的 獨自의인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었다. 또한 李澤에 의해 그 방향이 제시되고 安鼎福·李肯翊·韓致敏에 의해 계승 실천된 비파적 실증적 역사 인식방법은 東史綱目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관된 史綱을 기초로 하는 근대적인 국사서술 방식의 典형이 되었다.

이러한 實學者의 國史意識·歷史인식 방법은 1880—90년대의 애국계몽기 학자에게 계승되어 近代韓國史學을 싹트게 하였다. 愛國啓蒙 史學者들은 帝國主義의 침략이라는 건박한 현실속에서 國民大衆에게 애국정신·민족정신을 민족자를 통하여 제시하려 하고 그러한 목적의 國史연구 과정에서 民族의식을 토대로 한 國史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같은 近代韓國史學의 성장은 日帝시대에 日人學者에 의하여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즉 한국에 대한 植民地 支配의 合理的 근거를 韓國史에서 찾으려는 정치적 목적아래 日帝의 御用史家들은 그러한 學問外的 시각으로서 우리 歷史를 체계화하니 이른바 植民地史觀이 곧 그것이다. 이들 日帝 史學者에 의하여 우리 역사는 크게 歪曲되고 상처 입으니, 우리 역사의 본질로 나타난 것이 停滯性理論과 他律性理論이다. 日帝의 시킨지 史觀은 나약한 폐쇄주의 識者들에게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近代韓國史學의 성장은 이러한 植民地史觀을 비판하고 극복함으로써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近代韓國史學은 朴殷植·中采浩의 1910—1920년대 국사연구에 의해서 成立된다. 國魂을 歷史의 본질로서 파악한 朴殷植은 日帝의 침략과정과 그에 대한 民族항쟁을 近代的 歷史서술 방법에 입각하여 연구함으로써 最近世史를 체계화 시켰다. 朴殷植을 계승한 申采浩는 民族의식과 民衆意識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의식과 비판적·객관적 역사서술 방법론으로서 近代的 歷史理論을 제시하고 古代史분야에 획기적 연구업적을 이룩함으로써 近代韓國史學의 成立을 완결짓는다.

이렇게 하여 近代韓國史學은 日帝시대에 日帝식 민사관과 대립·투쟁하면서 폭넓게 발전한다. 즉 申

采摭史學을 계승한 民族主義 史學은 전통문화에 대한 강한 선의와 日帝에 항쟁하는 民族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韓國史의 발전을 民族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또한 社會經濟史學은 社會經濟的인 구조속에서 韓國史의 발전변칙을 내세웠으며, 實證主義 史學은 國史연구방법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國史學을 독립된 學問 수준으로 이끌었다. 해방이후 한구인 학자에 의해 주도된 韓國史學은 이러한 다양한 學派의 데립과 상호 보완으로 커다란 성장을 이룩하였다.⁽⁴⁶⁾ 實證주의 학파가 이루어 놓

은 연구방법은 이제는 어느 학파를 막론하고 史學者 歷史研究의 기초적인 작업과정이 되었다. 社會經濟史學도 日帝시대의 그것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인 계급사관의 속성이 배제된 채 사회경제적諸 현상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近代韓國史學의 내면적인 충실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같은 國史學의 폭넓은 성장의 바탕이 되는 여의의식은 民族主義 史學에서의 民族意識과 民衆意識이 부대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의 韓國史學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一面이 된다고 보겠다.

(46)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1976) 序章에서는 民族主義史學·社會經濟史學·實證史學이 각과 일정한 歷史的 구실을 담당하여 그 학문적 전통속에서 오늘의 韓國史學이 成長發展 하였다고 보았다.